

十五年前的 일이다. 先生은 當時 扶餘가 日本人들이 所謂 扶餘神宮을 造宮하던 初期라고 생각된다. 그 事業의 一環으로 大哉閣을 大幅修理하는 데 對한 先生의 見解를 나에게 相議해준 것이 契機가 되었다. 첫 印象이 매우 부드러웠으나 實은 剛直한 一面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好感과 믿음직해 보였던 것이다.

六・二五後에 故鄉에 돌아와 隣近中學校에 있을 때 자주 만날 機會가 있었고 만나니 울적 마다 우리 歷史와 우리 民族에 關한 여러가지 斷片的인 談話를 통하여 先生의 氣風을 그리고 先生의 性格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다. 先生을 모시고 한여름 三伏을 무릅쓰고 「忠南道誌」編纂關係로 忠南道內 古蹟遺物調査를 다니던 일, 아침을 굶어가며 食前六十里를 強行軍하던 일等等 先生의 回甲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感懷가 無盡하다!

如何든 先生은 三十有餘年이나 扶餘에서 平生을 보내시었다. 扶餘에 對한 鄉土愛는 참으로 眞學한 것이다. 先生은 百濟文化의 禮讀家이시고 百濟精神의 繼承를 主唱하신다. 先生을 百濟狂이라고 한다면 不敬되고 失禮될지 모르나 實際로 先生의 思想의 基調가 아닐 수 없다.

「百濟史는 羅唐軍의 焦土戰으로 灰盡되고 文獻도 新羅를 正統으로 꾸며진 三國史記로는 史의 信憑性을 立證하기는 徒勞無功이므로 考古學的 調査, 發掘, 研究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다」고 確言하는 先生은 扶餘의 곳곳에 묻혀있는 地下의 많은 遺物이 扶博으로 蒐集되고 整理되었음은 偶然한 事實이 아니다. 百濟佛의 破片 하나가 佛像系譜를 顛倒하는가 하면 金石文 하나가 百濟의 文化史의 價値를 再認識케 하고 簡便 逸失의 危機에서 救出되고 保存된 事例는 참으로 내가 目睹한 것만도 枚擧할 수 없는 程度이다.

또 先生은 淸貧한 本性和 潔白한 性稟은 學者로서의 師表라 아니할 수 없다. 自信이 있는 研究結果에 對하여는 一毫의 讓步도 없으시고 固執하신다. 아마 그러한 性質은 先生의 先代 三學士의 한 분이신 洪翼漢 先生의 血統이 그대로 遺傳된 듯한 節節한 氣質이기도 하다. 畢生을 두고 生을 바치신 先生의 業蹟은 이 扶餘天地에 흠이 트고 가꾸워져 과란 百

濟 하늘에 다사로 운 햇빛을 맞으며 成長하여 先生의 後繼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붓갈바를 모르겠다.

先生은 確實히 白紙같은 百濟의 서을 扶餘에 새로운 하나의 보리알이 아닐 수 없다. (一九六五, 三, 八)

然齊 洪思俊 先生의 華甲을 맞이하여

金 永 培

歲月의 흐름이란 이다지도 빠른 것인지 어 느듯 然齊先生의 華甲이 돌아왔군요, 白髮 하나 없으시고 三十代의 精力을 凌駕하시는 氣品을 간직하신채 壽筵을 맞으시니 錦上添花의 慶事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忌酒好甘하시니 先生께서 어떻게 파근한 獻酒一杯를 잘 잡수셨는지 못내 궁금합니다. 百濟文化의 優秀性에 對하여 該博하신 洞察力은 他的 追從을 不許하고 百濟文化의 探究宣揚에 全力하신 偉功은 길이 後世에 등불이 되겠습니다. 『百濟文化 되찾기運動』 『다운會』 등을 主宰하시며 알알이 쌓아올린 象牙塔은 길이 保全될 것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주신 敎示가운데서 「新羅의 工技는 出於百濟」라고 하신 한 句節이 되살아납니다. 이같이 百濟文化를 아끼시고 讚揚하시는 데는 참으로 百濟의 礎이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先生의 華甲을 맞이하여 더욱 느껴지는 것은 二十有星霜을 先生과 같이 그 길에서 苦樂을 겪은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가꾸어 주시고 敎導하여 주신 先生의 厚恩에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人生이란 生老病死의 四苦海를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苦海를 건지는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 塵世에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先生께서 남기신 百濟文化에 對한 該博하신 高見은 길이 後學들의 燈불이 될 것입니다. 扶蘇山 푸른 솔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白江 물이 넘치고 흘러서 大海가 이루어지도록 長壽하시고 더욱 精進이 있으

시기를 비는마음懇切합니다.

III

鎮南館補修通信(其一)

崔 容 完

昨年十二月十五日着工以來修理工事は三月一日現在約四十八%の工程を 보이고 있다. 建物에 關하여 略述하면 平柱와 高柱 七十二柱로 柱心內 面積二百坪을 넘는 規模이다. 지붕은 팔각지붕으로 四隅에 추녀 아래를 갖추었다. 前面에 十五間의 建物內部에는 闕碑를 奉安하고 國慶 賀禮 國哀奉悼를 官民一同이 舉行하는 客舍로서 左 水營水兵舍로서 偉 風이 建物外觀에 넘친다.

李朝宣祖 때(三百六十六年前) 建立되었었고 肅宗期에(三百四十九年前) 火 災가 있었다고 郷土史에 전하는 바 今번 工事中에 막새瓦의 銘文에서 康熙五十六年의 修築記錄이 나타나 지금부터 二百四十八年前에 지금의 建物이 建立된 것으로 推測된다. 또 望瓦의 銘文에서 咸豐十一年의 記錄이 發見되어 지금부터 一百四十年前에 지붕 修理가 있었고 建物의 南面 두 곳의 包와 西北隅包를 修理하였음을 推定할 수 있다. 平柱中에 四隅柱 가 直徑 二尺八寸內外로 가장 굵고 御間의 兩柱가 다른 平柱보다 二寸 쯤 더 굵은 直徑 二尺五寸內外이다. 이들 柱上部에 龍頭가 前面을 向하 여 彫刻되었었다. 建物의 內部에서도 兩側층랑위로 넘어 내려오는 한쌍의 大龍이 있다.

今번 修理工事に 있어서는 建物의 東北部分의 기둥들과 西便에 파괴 된 大椽을 新材로 교체하여 심한 곳은 약 一三도 이상 기울어졌던 軸部 를 도잡이 하여 바로 세우고 解體工事時에 마루는 周核部가 中央部보다 한단 낮은 構造로 밝혀졌으므로 原形을 찾아 復元하여 우물마루로 놓고

지붕에는 數次의 修理工事を 通하여 결손된 蓋瓦를 補充하여 막새와 兩 두 취두를 갖추는 일이 이다. 또한 童子柱 數個所에 中間修理工事의 部分 的 不合理한 構造變更部分을 原形으로 復元하여 建物의 壽命을 最大限 으로 安全토록 하며 樣式을 손상치 않은 範圍內에서 力學的인 補強方法 을 取하기로 하였다.

工事に 어려운 點은 建物의 規模가 크기 때문에 各部材는 規格이 크 고 모든 木材는 材質에 따라 變形을 일으킨 點이다. 특히 기둥의 경우 아래는 自然石 大柱礎위에 그 랭이 질하여 柱下面을 自然石모양에 맞추어 彫刻하여 安置했으므로 材質에 따라 「뒤틀림」을 일으켜도 下端은 固定 되고 上部에 包는 柱와 함께 회전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木造部材에 나타나고 있으나 진남관의 경우는 조금 심한듯하다.

考古美術 Ⅱ—스

◎文化財 第一分委(二次)

二月二十七日午後. 出席委員 金岸基 金斗鍾 李相佰 金元龍 黃壽永 李弘植(委 任)外 李應哲課長 李浩官氏 附委委員은 다음과 같다.

一、一九六四年度 業績報告

二、日本讀賣新聞社主催 韓國文化展……否決

三、石塔 石佛移轉

가、慶北 榮州郡 浮石面 北枝里 石塔二基와 奉化物野面 梧田里 石佛一軀를 浮石 寺境內로 移轉建立코자하는 申請……否決하고 旣移動된 石塔은 道敎教育監 責任下에 原位置에 復元키로 함.

나、江原道 襄陽郡 隆峴面 屯田里(陳田寺址) 三層石塔 및 同郡西面(禪林院址) 石塔材들을 東草市 神興寺境內에 移建申請……鄭永鎬 專門委員會 現地出 張케 하여 調査後 處理키로 한다.

四、景福宮內 建物建築(首都警備司令部申請)
五、石窟庵本尊白毫設置……否決